

검색

현대불교

f

기획 > 오피니언

## [현불논단] 천리순례, 그리고 서원공동체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 입력 2021.10.04 08:26 수정 2021.10.04 08:27 댓글 0



의정 스님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엔  
천축 순례 신라 스님 10여 명 기록  
고원·바다 건너는 험난한 여정에  
순례스님 중 80~90%는 귀환못해  
구법승덕분에 佛法 한반도에 전래

삼보사찰 이어내는 천리순례길은  
1800년 韓佛교사 담아 내고 있어  
걸음들, 서원공동체 밀거름 되길

한국불교에서 순례는 오래된 전통이다. 한국불교는 전래와 수용부터 옛 스님들 한 분 한 분의 순례와 구법을 통해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7세기 말 당나라의 의정 스님이 쓴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는 천축을 순례 중 만난 동아시아의 스님 50여 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신라 출신 스님이 10여 명에 달한다. 인구 비례를 따진다면 신라 스님의 이 비중은 대단히 높은 것이다.

굳이 세계적인 기행문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혜초 스님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일찍부터 우리 불교에 순례의 전통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스님의 순례길은 실크로드 사막길과 파미르 고원의 저쪽 험한 총령을 넘는 육로와 거센 풍랑을 이겨야 하는 바닷길의 두 가지 길이 있었다. 현장 스님은 <대당서역기>에서 부처님의 나라 천축에 다녀오는 구법 순례길을 10명 중에 8~9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길로 묘사했다.

그 죽음의 길을 건너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 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해오면서 형성된 것이 동아시아의 불교이고 한국 불교이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들 옛 스님들의 목숨을 건 종교적 열정과 서원이 없었다면, 18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문화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주된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 선종(禪宗)의 시작도 순례에서 비롯되었다. 신라 하대와 고려 전기에 걸쳐서 구산선문을 개창한 스님들은 대부분 순례자였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구법승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들 구산선문의 개산조들은 대부분 중국의 유명한 선사들을 참방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구한 순례자들이기도 했다. 이들 스님들의 중국 내 행로를 쫓아가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당나라의 오대산, 장안, 성도, 그리고 강서성과 6조 혜능 스님이 머물렀던 조계 등이다.

사부대중이 모여 함께 삼보사찰을 잇는 천리길을 순례하는 대규모 불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한국불교가 1800년 영욕의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불교성지이다.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를 잇는 길이다. 불교뿐만 아니라 남도의 산야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꺼안고 있는 길이다. 동시에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텅 비어버린 지방 도시의 소읍과 들판, 산들을 잇는 길이기도 하다.

전통문화와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을 품고 있지만, 소외되어 있는 농촌마을들과 지역사회들이 힘겹게 삶을 일구고 있는 현장들을 지나는 길이기도 하다. 옛 스님들의 구도정신, 수행정신, 그리고 중생을 아우른 요익중생의 서원이 깃들여 있는 길이다. 그

### 최신뉴스

선학원 폐쇄적 운영·횡포 막을 방안 있...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19. 스미소나·보살도>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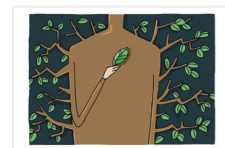
[모정불심] 19. 효석 스님의 어머니



[현불논단] 가을의 문턱에서...



[병상포교일기] 초발심시 변성정각



### 인기뉴스

1 最古 금속활자에 묻힌 '직지' 성보 가치

2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 걷다

길을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45년 동안 맨발로 걷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부처님의 대자비심이 되새겨지기를 기원해본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까지 한 걸음도 멈추지 않으셨듯이, 옛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목숨 내놓기를 마다하지 않았듯이, 우리 불교 성지인 삼보사찰을 잇는 순례의 여정 또한 중생을 아우르는 동체대비의 마음들이 절로 우러나는 신행의 길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순례는 쫓아서 따르는 것이다. 삼보사찰을 순례한다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호지(護持)하는 스님들을 쫓아서 따르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 걸음들이 한국불교를 되살리고, 한국사회를 아우르며, 당면한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외된 생명과 소외된 삶들의 가치를 되새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 함께 상생하는 우리 한국불교 서원공동체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hyunbulnews@hyunbul.com

가자의 다른기사 >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시각추천뉴스

참선지도사명상지도사 1~2급 자격시험 시행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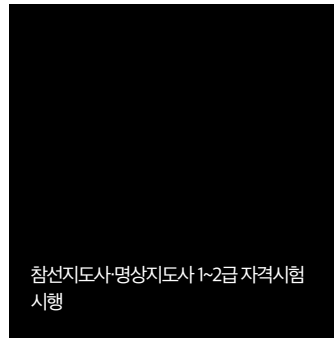
해인사가 "붕이 김선달?" 정청래 의원 사과하라

근현대 불교종흥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

K-메타버서 국보 반가사유상 만나볼까

문명사 속 불교와 역병의 관계는

"코로나 시대禪, '사회적 마음챙김'에 주목을"



3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치 되새기다

4 천리순례,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5 달콤한 몰트향 속에 깊은 산운이 담겨

studio GONG

[현대불교NEWS] 상월결사



[영상] 상월결사 우중행선, 걸음마다 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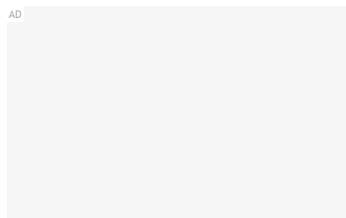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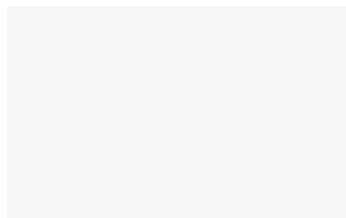
태고종 전북종무원장에 진성스

당신에게 추천하는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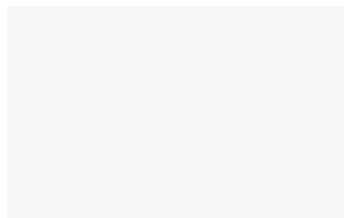
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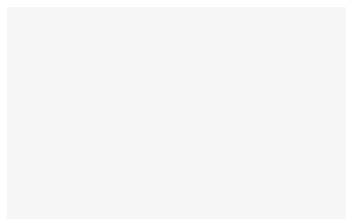
김오곤다이어트 진작 할 걸.. "옆구리, 허벅지" 다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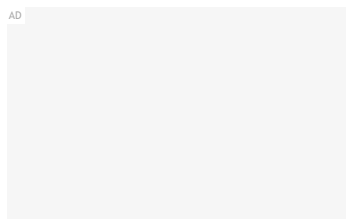
[포교콘서트] 3. "역량 결집, 새 포교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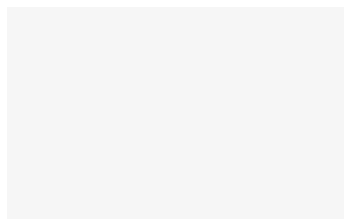
선암사 역대선조사 추모 추다례 봉행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몽저있는 북부지방, "이것"으로 짝- 빠져!!



표충사, 제556회 사명대사 추계향사 봉행



##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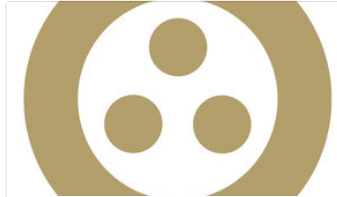
## 주요기사



광명사, 불교 스피치로 포교 강조



템플스테이 체험한 평수, 묵언 수행에 성공했을까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기로



[삼보사찰 천리순례]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코로나에도 '추석차례'는 사찰에서



성파 스님, "종정 후보 추대 대중의 뜻에 따라"



UPDATED. 2021-10-15 19:57 (금)

☞ 제보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구독신청

불편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오피스텔월드) 606

대표전화 : 02)2004-8200 | 팩스 : 02)737-0698

법인명 : 현대불교신문사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2 | 등록일 : 2007-03-09

발행·편집인 : 조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

